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년 1월
석사학위 논문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이경희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Association of Verbal Abuse with Mental Health
Among Some Operating Nurses

2012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이경희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류 소 연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이 경 희

이경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종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미 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류 소 연 인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 목 차 >

표 목차	iii
ABSTRACT	iv
I. 서론	1
II. 연구 방법	3
A. 연구 설계	3
B.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기간	3
C. 연구 도구	3
D. 분석 방법	5
III. 연구 결과	6
A. 연구 대상자의 특성 분포	6
B.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한 언어폭력	9
C. 연구대상자의 제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비교	12
D. 언어폭력이 정신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	16
IV. 고찰	18
V. 요약 및 결론	22

참고문헌	23
설문지	26
감사의 글	34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	7
표 2. 연구대상자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수준 -----	8
표 3. 연구대상자의 언어폭력 경험과 발생 요인 -----	9
표 4. 간호사, 의사 요인에 따른 언어폭력 유형 -----	11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비교 -----	13
표 6. 건강행태 및 언어폭력 경험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비교 -----	14
표 7. 언어폭력 상황요인,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	15
표 8. 언어폭력이 정신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결과) -----	17

Association of Verbal Abuse with Mental Health Among Some Operating Nurses

Lee, Kyung hee

Advisor : Prof. Ryu So-Yeon.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xperience of verbal abuse during the recent a month an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verbal abuse and mental health in some operating nurse.

The study subjects were 176 operating nurse in some general hospital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17 to October 31, 2011. The questionnaire compos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xperience of verbal abuse, verbal abuse scale, self-esteem, job stress and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20. The used analysis methods wer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ercentage of experience of verbal abuse in the study subjects were 65.3%. In talk down situation, the verbal abuse factors of nurses and doctors were measured highly. In simple analysis, the experience of verbal abuse and scores of verbal abuse scale(nurses domain, doctors domai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cores of mental health.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xperience of verbal abuse(Model 1, $b=2.664$) and scores of nurses domain in verbal abuse scale(Model 2, $b=0.398$)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ed with mental health.

In conclusion, the verbal abuse of operating nurses influenced mental health.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intain and promote mental health of operating nurses by developing the various prevention program for preventing verbal abuse.

I. 서론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병원 간호 인력의 8-10%를 차지하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폐쇄적인 환경의 특성상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근무여건과 역할이 다르다(남경동 등, 2006). 수술실 간호사는 환자가 수술을 받는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간호행위를 행해야 하는 신속성이 요구되고, 다양해진 수술의 종류만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만큼 의도적이고 역동적이며 전문적인 과정으로 계획된 간호중재와 간호 활동을 통해 수술환자에게 과학적인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Gruendemann, 1987).

수술실에서의 업무진행은 주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남경동 등, 2006), 타 부서에 비해 수직적 체계를 통한 의사소통과 명령체계가 일상화되어 있다(김현숙, 2009). 더욱이 수술실은 한정되고 통제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되므로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 의사와 동료 간호사와의 갈등, 일방적인 통보나 명령을 내리는 업무진행방식의 의사소통 등으로 인해 간호사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원진희, 2008), 언어의 부적절한 사용은 언어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남경동 등, 2006). 언어폭력이란 타인에 의해 난폭하고 비난을 주는 공격적인 말을 들음으로써,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손상시킨다고 느끼는 언어표현을 말한다(Infante와 Wiglye, 1986).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해야 하고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또한 의사 및 동료와의 곤란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회피를 위한 자리 비우기가 불가능하여 직접 부딪히게 되므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 언어폭력에 노출되기 쉽다(Buback, 2004).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수술실 간호사들은 90% 이상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언어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그로인해 성적, 감정적으로 손상이나 상처를 받았다고 보고된 바 있어(Cook 등, 2001; 남경동 등, 2006), 언어폭력은 수술실 간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언어폭력 경험 후 간호사들이 주로 호소하는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은 ‘화나다’, ‘짜증이 난다’, ‘우울하다’ 등이었고(Hislop E와 Melby V, 2003; 손희진, 2010), 죄책감, 불신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남경동 등, 2005). 또한, 언어폭력은 대인관계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듣는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품위

를 떨어트리고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게 된다(Hadley, 1990). 이러한 언어폭력에 장기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높은 직무스트레스, 자존감 저하나 심리적 위축, 분노, 허탈, 불안 등이 초래될 수 있고(장선주, 2004),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생산성, 업무 수행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이직 등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게 된다(Ryan과 Poster, 1991; Buback, 2004). 또한 직업에 대한 정체감을 파괴시키며, 적대감과 공포로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최웅지, 2004).

이상에서와 같이 언어폭력은 언어폭력을 받은 간호사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손상, 즉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정신건강을 위협하여 간호사의 삶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순희와 정승은, 2007). Taft(1985)는 자아존중감을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고 건강한 사회적 능력을 가져오는 기반이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높으면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 저하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유발하며, 이는 개인과 조직 및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정신건강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병동 간호사나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일부 수술실 간호사들의 언어폭력에 대해서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과 반응(황재용, 2008), 수술실 간호사에게 행해지는 언어폭력의 실태(김경아, 2009),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단기감정 반응과 장기 부정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남경동 등, 2006)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언어폭력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의 내용과 빈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언어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B.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기간

G광역시에 소재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13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에 동의한 수술실 간호사 178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이 중 남자간호사가 2명이 조사되었으나, 성별의 영향력을 고려하기에는 소수라 이들을 제외한 176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다.

C.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척도, 언어폭력 유형에 대한 측정(간호사 요인, 의사요인)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로 구성되어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여부, 임상 경력 및 수술실 경력, 직위와 근무형태 등)과 건강행태 관련특성(음주상태, 운동여부, 치료 경험)을 조사하였다. 운동여부는 일주일간의 운동 실시 빈도를 조사하여,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를 운동함,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동 안함으로 분류하였다. 치료 경험은 지난 2주 동안 병원 등에서 질환에 대한 치료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2)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

수술실 간호사로서 최근 한 달 동안 경험한 언어폭력 경험 여부와 빈도를 조사하였다. 언어폭력 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는 국내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언어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남경동 등(2005)이 개발한 1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사 요인과 간호사 요인으로 크게 분류되었으며, 의사 요인은 자아개념 손상, 모욕감, 동료의 품위손상 등의 3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간호사 요인은 자아개념 손상 한가지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언어폭력이 매우 낮으면 1점, 매우 높으면 4점으로 측정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 요인 혹은 간호사 요인에 대한 언어폭력 정도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의사 요인에서는 Chronbach's $\alpha=0.848$, 상사 및 동료 간호사 요인에서는 Chronbach's $\alpha=0.809$ 였다.

3) 자아존중감

Rosenberg(1971)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이고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735$ 였다.

4) 직무스트레스

Karasek 등(1988)의 고용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내용 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우리나라의 근무환경에 맞게 번역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장세진 등, 2001). 직무요구도 5개 문항, 직무자율성은 의사결정 권한(decision authority)(3문항)과 기량의 활용성(skill discretion)(6문항)의 9개 문항 총 14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Karasek 등의 점수 산정 방식에 따라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직무요구도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직무통제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요구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676$ 이었고, 직무자율성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577$ 이었다.

5)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

일반정신건강 척도 정신건강척도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General Health Questionnaire(GHQ)의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개발한 신성인(2001)의 KGHQ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20을 사용하였다. KGHQ는 응답자의 지난 2-3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응답자의 평소 심리상태와 비교함으로써 변화된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고안된 것이다(신성인, 2001).

각 요인별 불안 요인 5문항, 우울 요인 5문항, 사회적 부적응 9문항, 외출 빈도 1문항 등으로 총 20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를 합한 것을 정신건강 점수로 사용하였다. 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대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정도는 나쁨을 의미한다. 8개 문항 (2번, 5번, 6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은 역변환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11$ 이었다.

D.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와 언어폭력 등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 분산분석과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모형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의 언어폭력 경험과 통제를 위해 단순분석에서 관련성이 확인되었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2에서는 언어폭력 경험을 대신해서 의사 요인과 간호사 요인으로 분류, 측정된 언어폭력 상황을 주요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A. 연구 대상자의 특성 분포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를 보면, 연령은 20-29세 68.2%, 30-39세 26.7%, 40세 이상 5.1%로 평균연령은 28.5세였다. 학력은 3년제 대학 졸업 77.8%, 4년제 대학 졸업 17.6%, 대학원 이상이 4.5%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72.7%, 기혼자가 27.3%였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는 51.1%,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간호사는 48.9%였다. 임상경력은 1-4년 49.4%, 5-9년 29.0%, 10-19년 17.0%, 20년 이상은 4.5%였으며 임상경력에 따른 수술실 경력으로는 1-4년 59.1%, 5-9년 23.9%, 10년 이상은 17.0%였다. 현 수술실에서의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9.8%, 책임간호사 4.5%, 수간호사가 5.7%였고, 근무형태로는 주간 근무가 73.3%, 2교대가 10.2%, 3교대가 16.5%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76)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세)	20-29	120	68.2
	30-39	47	26.7
	40 이상	9	5.1
학력	3년제 대학	137	77.8
	4년제 대학	31	17.6
	대학원 이상	8	4.5
결혼상태	미혼	128	72.7
	기혼	48	27.3
종교	무	86	48.9
	유	90	51.1
임상경력(년)	1-4	87	49.4
	5-9	51	29.0
	10-19	30	17.0
	20 이상	8	4.5
수술실 경력(년)	1-4	104	59.1
	5-9	42	23.9
	10 이상	30	17
직위	일반간호사	158	89.8
	책임간호사	8	4.5
	수간호사	10	5.7
근무형태	주간 근무	129	73.3
	2교대	18	10.2
	3교대	29	16.5

연구대상자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한 결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가 10.8%, 가끔 마신다 52.3%, 자주 마신다 36.9%였으며, 운동여부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하 84.7%, 일주일에 3회 이상 15.3%였다. 최근 2주 동안 병원 치료경험에서는 치료 경험이 있다가 17.0%, 치료 경험이 없다가 83%였다.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8.46 ± 2.95 점, 직무요구도 34.19 ± 5.64 점, 직무자율성 60.78 ± 8.96 점, 정신건강 47.59 ± 7.45 점이었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수준

(N=176)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
음주상태	전혀 마시지 않는다	19	10.8
	가끔 마신다	92	52.3
	자주 마신다	65	36.9
운동여부	하지 않는다	149	84.7
	한다	27	15.3
치료 경험	있다	30	17.0
	없다	146	83.0
자아존중감(점)	평균±표준편차	28.46 ± 2.95	
직무요구도(점)	평균±표준편차	34.19 ± 5.64	
직무자율성(점)	평균±표준편차	60.78 ± 8.96	
정신건강(점)	평균±표준편차	47.59 ± 7.45	

B.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한 언어폭력

최근 한 달간 언어폭력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다가 34.7%, 경험하였다가 65.3%였으며, 경험 횟수는 최근 한 달간 1회 17.0%, 2회 25.6%, 3회 9.1%, 4회 6.8%, 5회 이상 경험이 6.8%였다. 간호사가 경험한 상황요인별 언어폭력 유형에서 간호사 요인은 평균 11.59±3.04점, 의사 요인은 평균 18.39±4.53점이었다 (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언어폭력 경험과 발생 요인

(N=176)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
언어폭력 경험	없다	61	34.7
	있다	115	65.3
언어폭력 횟수	1회	30	17.0
	2회	45	25.6
	3회	16	9.1
	4회	12	6.8
	5회 이상	12	6.8
언어폭력 유형 간호사 요인(점)	평균±표준편차	11.59±3.04	
언어폭력 유형 의사 요인(점)	평균±표준편차	18.39±4.53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 중 간호사(동료)에 의한 언어폭력과 의사에 의한 언어폭력의 유형을 분석한 것 중 간호사 요인 중에서는 ‘간호사가 나에게 반말을 한 적이 있다’(평균 2.18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사가 나에게 강압적인 명령조로 말을 한 적이 있다’, ‘간호사가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간호사가 나에게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간호사가 나를 무시하며 하찮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의 성격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의 순이었다. 의사 요인을 살펴보면 ‘의사가 나에게 반말을 한 적이 있다’(평균 2.56)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가 나에게 강압적인 명령조로 말을 한 적이 있다’, ‘의사가 나 보는 앞에서 나의 상사, 후배(동료)에게 반말이나 막말, 폭언을 한 적이 있다’, ‘의사가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의사가 나에게 다른 간호사(상사, 동료, 후배)에 관해 듣기 거북한 험담을 한 적이 있다’ 등의 순이었다(표 4).

표 4. 간호사, 의사 요인에 따른 언어폭력 유형

(N=176)

주요인	문항내용	평균	표준편차	순위
간호사 요인	반말을 한 적이 있다.	2.18	.808	1
	강압적인 명령조로 말을 한 적이 있다.	1.92	.729	2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68	.607	3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66	.657	4
	무시하며 하찮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51	.595	5
	나의 성격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50	.576	6
	화내며 욕을 한 적이 있다.	1.15	.420	7
의사 요인	반말을 한 적이 있다.	2.56	.899	1
	강압적인 명령조로 말을 한 적이 있다.	2.37	.737	2
	나 보는 앞에서 나의 상사, 후배(동료)에게 반말이나 막말, 폭언을 한 적이 있다.	2.09	.666	3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97	.716	4
	다른 간호사(상사, 동료, 후배)에 관해 듣기 거부한 험담을 한 적이 있다.	1.76	.632	5
	화내며 욕을 한 적이 있다.	1.76	.733	6
	나의 직종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65	.702	7
	나의 외모나 신체상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59	.687	8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39	.632	9
	나를 헐박하면서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27	.515	10

C. 연구대상자의 제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비교

수술실 간호사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점수는 20세 이상에서 평균 49.04±7.46점, 30세 이상 평균 45.00±6.48점, 40세 이상 평균 41.77±5.99점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에 따른 정신건강점수는 3년제 대학 졸업이 평균 48.32±7.13점, 4년제 대학 졸업이 평균 45.77±7.97점, 대학원 이상이 평균 42.12±8.33점으로 유의하였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보다는 기혼이,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에서 유의하였다. 수술실 경력에 따른 정신건강점수는 1-4년 48.89±7.53점, 5-9년 47.50±7.05점, 10년 이상에서 43.20±6.11점으로 유의하였고, 근무형태에 따른 정신건강점수는 주간 근무에서 46.47±6.93점, 2교대 근무에서 50.61±8.90점, 3교대 근무에서 50.68±7.63점으로 유의하였다(표 5).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비교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p-값
연령(세)	20-29	49.04±7.46	<0.001
	30-39	45.00±6.48	
	40 이상	41.77±5.99	
학력	3년제 대학	48.32±7.13	.023
	4년제 대학	45.77±7.97	
	대학원 이상	42.12±8.33	
결혼여부	미혼	49.14±7.23	<0.001
	기혼	43.45±6.46	
종교여부	무	48.86±7.93	.027
	유	46.37±6.79	
수술실 경력(년)	1-4	48.89±7.53	.001
	5-9	47.50±7.05	
	10 이상	43.20±6.11	
직위	일반간호사	47.97±7.49	.095
	책임간호사	45.75±4.13	
	수간호사	43.00±7.64	
근무형태	주간 근무	46.47±6.93	.004
	2교대	50.61±8.90	
	3교대	50.68±7.63	

건강행태 및 언어폭력 경험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 점수가 48.31±7.40점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43.59±6.4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 점수가 높았다. 또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 49.40±6.88점으로 언어폭력 경험이 없었던 경우의 정신건강 점수 44.18±7.3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상태와 질병에 대한 치료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표 6. 건강행태 및 언어폭력 경험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비교

특성	구분	평균 ± 표준편차	p-값
음주상태	전혀 마시지 않는다	47.26±4.96	.597
	가끔 마신다	47.13±6.82	
	자주 마신다	48.33±8.82	
운동여부	하지 않는다	48.31±7.40	.002
	한다	43.59±6.49	
치료 경험	없다	47.23±7.38	.161
	있다	49.33±7.66	
언어폭력 경험	없다	44.18±7.36	<0.001
	있다	49.40±6.88	

연구대상자의 언어폭력 상황요인,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동료 간호사로부터 경험하는 언어폭력과 의사로부터 경험하는 언어폭력 모두 정신건강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술실 간호사의 자아존중감,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요구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직무자율성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아 정신건강이 양호하였고, 직무요구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높아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았다.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아 정신건강이 양호하였다(표 7).

표 7. 언어폭력 상황요인,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건강	언어폭력 간호사요인	언어폭력 의사요인	자아 존중감	직무 요구도
언어폭력 간호사 요인	0.477 (<0.001)				
언어폭력 의사 요인	0.402 (<0.001)	0.421 (<0.001)			
자아존중감	-.620 (<0.001)	-.376 (<0.001)	-.280 (<0.001)		
직무요구도	0.410 (<0.001)	0.224 (.003)	0.192 (.011)	-.277 (<0.001)	
직무자율성	-.350 (<0.001)	-.110 (.146)	-.181 (.016)	0.156 (.038)	-.206 (.006)

D. 언어폭력이 정신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언어폭력이 수술실 간호사의 정신건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모형의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정신건강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b=2.664$, $p=0.003$). 이외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변수는 학력이 3년제 졸업한 경우에 비해 4년제 졸업을 한 경우, 운동을 하는 경우,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 중 직무자율성 점수가 높은 경우 정신건강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직무스트레스 중 직무요구도가 증가할수록 정신건강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들에 의한 설명력은 55.1%였다.

모형 2의 경우 언어폭력 상황 요인 중 간호사 요인점수가 증가할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b=0.398$, $p=0.009$), 의사 요인은 정신건강점수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외에 운동여부와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인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이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설명력은 55.9%였다(표 8).

표 8. 언어폭력이 정신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기준군)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최근 한 달 동안의 언어폭력 경험 (있다/없다)	2.664	.891	.003	-	-	-
언어폭력 유형 간호사 요인(점)	-	-	-	.398	.150	.009
의사 요인(점)	-	-	-	.139	.097	.154
학력(/3년제)						
4년제	-2.646	1.040	.012	-1.882	8.197	<.001
대학원 이상	1.132	2.100	.591	1.007	2.084	.630
종교(있다/없다)	-1.194	.814	.144	-.972	.806	.230
근무형태(/주간근무)						
2교대	.440	1.461	.764	-.274	1.447	.850
3교대	1.747	1.487	.242	.523	1.473	.723
결혼상태(유/무)	-.593	1.161	.611	-1.120	1.105	.312
운동여부 (한다/안한다)	-2.339	1.170	.047	-2.471	1.160	.035
수술실 경력(년)	-.612	.662	.356	-.326	.660	.622
근무시간(시간)	.060	.507	.905	.311	.490	.527
자아존중감(점)	-1.125	.143	<0.001	-1.007	.147	<.001
직무요구도(점)	.291	.077	<.001	.256	.077	.001
직무자율성(점)	-.158	.048	.001	-.156	.048	.001
R ²	0.551			0.559		

IV. 고찰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 정도와 내용을 알아보고, 이들이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최근 한 달간 언어폭력을 경험한 수술실 간호사는 65.3%였으며, 경험 횟수는 최근 한 달간 1회 경험한 간호사는 17.9%, 2회 25.6%, 3회 9.1%, 4회 6.8%, 5회 이상이 6.8%이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실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언어폭력 경험은 97.8%이었고(남경동 등, 2006),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경험한 언어폭력을 조사한 결과 53.7%이었다(김민정, 2008). 선행연구의 경우 본 연구와 언어폭력을 경험한 준거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언어폭력의 경험률의 비교는 어려우나, 임상간호사의 1년 폭력 경험에 비해 본 연구의 수술실 간호사의 1개월의 언어폭력 노출 경험이 더 높다는 점을 볼 때 수술실 간호사의 언어폭력 정도는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수술실 간호사의 언어폭력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의 요인별 유형은 간호사 요인 중에서는 ‘반말’이 1위, ‘강압적인 명령조의 말’이 2위,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 3위 등의 순으로 자아개념 손상 항목에서 높은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사 요인 중에서도 ‘반말’이 1위, ‘강압적인 명령조의 말’이 2위로 측정되어, 의사 요인에서도 자아개념 손상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경험 빈도가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언어폭력 경험 유형을 보면 황재용(2008)의 연구에서 간호사 요인으로 ‘반말을 한다’,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 순으로 측정되었고, 의사 요인으로는 ‘소리를 지른다’, ‘반말을 한다’ 순으로 측정되어 간호사, 의사 요인 1, 2위가 모두 자아개념 손상에 속하였다. 김정아(2009)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의사 요인 모두 ‘반말을 한 적이 있다’가 1위로 반말에 대한 언어폭력의 노출 경험이 높은 것은 관련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이었다. 반말을 언어폭력의 유형으로 인지하는 것은 한국문화 속에서 반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시켜 불쾌감을 일으키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하였고(권혜진, 2007), 공식적인 근무시간 내에서 상사 및 동료로부터의 반말 경험은 친근감보다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험으로 인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직장 내 근무상황에서의 반말의 사용과 같이 상대방에 불쾌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공감과 바른 말 사용법에 대한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실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 여부와 언어폭력의 주요 요인인 의사, 간호사 요인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언어폭력의 경험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었다. 즉 언어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보다 언어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사의 정신건강이 양호하였다. 남경동 등(2006)의 연구에서 언어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으며, Oweis와 Mousa Diabat K(2005)은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큰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고 하여 이는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폭력 요인 중, 의사 요인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간호사 요인의 결과는 유의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김현숙(2009)은 의사의 경우는 직종이 다르고 간호사와 직접적인 상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후의 업무관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간호사들과의 관계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긴장이 고조되며, 간호사 조직문화의 엄격한 규율과 신규 간호사부터 수간호사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어 상하위계질서와 수직적 의사소통이 언어폭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제시하였다(강명자 등, 2006). 김현숙(2009)의 연구에서는 언어폭력의 요인에서 상사간호사와 동료간호사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상사간호사로부터의 언어폭력 요인이 심각하게 나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았기에 간호사 요인에서 상사로 부터의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동료로부터의 언어폭력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차후 연구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관계를 구분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사 요인과 함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인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에서도 결과는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였고,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상태는 양호하지 않았다. 홍경자(2002)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문제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윤지선(200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간호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었고,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폭력이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에 대한 관계는 조사되어지지 않았지

만, 장선주(2004)의 연구에서 언어폭력에 의해 간호사는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손희진(2011)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인 언어폭력 경험이 감소한다면 자아존중감 증가와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수술실 간호사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사들의 운동여부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cCullgh 등(1988)은 운동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의 향상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간호사들의 운동 여부는 조절 가능한 변수이기에 수술실 간호사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운동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켜나간다면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 학력, 종교, 근무형태, 결혼여부, 수술실 경력, 근무시간 등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에서 Fredman과 Rosenman(1974)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문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술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언어폭력과 정신건강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언어폭력 상황을 측정할 도구의 경우 수술실 근무 기간이나 최근 한 달 동안의 경험을 구별하여 조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언어폭력에 대한 상황을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수술실과 같은 특수 부서에서의 경험만이 아닌 간호사로서 경험한 언어폭력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한 언어폭력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언어폭력이 주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간호사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에의 노출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간호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이 의사로부터의 언어폭

력 경험보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의사보다는 간호사에게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같은 동료에게서 받는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언어폭력 발생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언어폭력이 수술실 간호사 서로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언어폭력 발생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파악과 정신건강관련 연구를 통해 수술실 간호사들의 건강수준을 유지·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의 상황을 파악하고, 언어폭력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술실 간호사 176명이었고,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 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수술실 간호사의 언어폭력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언어폭력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분산분석, 피어슨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한 달간 언어폭력을 경험한 수술실 간호사는 65.3%였다. 언어폭력의 요인에 따른 상황에서는 간호사, 의사 요인 모두에서 ‘반말’의 상황이 높게 측정되었다. 언어폭력 경험 여부와 간호사 요인과 의사 요인에 의한 언어폭력 상황요인 점수는 정신건강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다른 통제 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언어폭력 경험 여부(모형 1, 회귀계수=2.664)와 언어폭력 상황(모형 2) 중 간호사 요인(회귀계수=0.398)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의사 요인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외에 운동여부와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인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이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의사 보다는 간호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언어폭력 발생 상황을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 및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여 수술실 간호사들의 정신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술실 간호사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 연구들을 시행하여 수술실 간호사들의 정신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명자, 이해정. 주장훈련이 간호사의 의사소통 관련 요인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006; 36(5): 681-690.

권혜진, 김효심, 최귀순, 이경숙, 성영희. 의료기관내에서의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2007; 13(2): 113-124.

김민정. 임상간호사가 경험하는 폭력의 유형과 폭력 후 대응양상.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김경아. 수술실 간호사에게 행해지는 언어폭력 실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김현숙. 일개병원의 특수부서 간호사에서 언어폭력, 사회적 지지와 이직의도의 연관성.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김혜숙, 임현우, 이지연, 조현주, 조선진, 이원철. 일부 임상간호사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2007; 19(2): 125-134.

남경동, 윤계숙, 정혜선, 박순애, 장부영, 김혜란, 엄현신, 성영희.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 측정 도구의 개발. 간호행정학회지 2005; 11(2): 159-172.

남경동, 윤계숙, 정혜선, 박순애, 장부영, 성영희.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단기감정반응과 장기 부정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006; 12(3): 343-354.

박경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국어 교육의 방향. 경찰대학논문집 2001; 21: 315-353.

손희진. 병원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과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 및 직무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원, 2011.

신선인.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한국 사회복지학, 2001.

윤지선.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원진희. 수술실간호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과 조직사회화.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이순희, 정승은. 병원 내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

2007; 13(4): 526-536.

임진수. "꼭 참아라!" 병원 간호사 등 잇단 자살 왜? Retrieved 10, 26, 2006, from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47916>.

장선주.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경험한 환자의 폭력행동과 소진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2004.

전병재.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974; 11: 107-129.

최용지. 응급실내에서 발생한 폭력의 실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의학대학원, 2004.

황재용.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과 반응.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홍경자.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 : 간호사와 교사 그룹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002; 32(4): 570-579.

Buback D. Assertiveness training to prevent verbal abuse in the OR. AORN J, 2004; 79(1): 148-150.

Cook JK, Green M, Topp RV. Exploring the impact of physician verbal abuse on perioperative nurses. AORN J, 2001; 74(3): 317-331.

Hislop E, Melby V. The lived experience of violence in accident and emergency. Accid Emerg Nurs, 2003; 11(1): 5-11.

Friedman M, Rosenman RH.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Conn Fawcett Publishers, 1974.

Gruendemann BJ. Care of the patient in surgery. ST. Louis, C.V.Mosby CO, 1987.

Hadley M. Background paper regarding abuse of nurses in the workplace. ARRN News Lett, 1990; 46(9): 6-9.

Infante DA, Wigley CJ. Verbal aggressiveness: An interpersonal model and measure. Communication Monographs, 1986; 53: 61-69.

McCullagh P, North TC, Mood D. Exercise as a treatment for depression; A meta analysis. Human Kinetics Publisher, 1988; 9-58.

Oweis A, Mousa Diabat K. Jordanian Nurses Perception of Physician's Verbal Abuse: Findings from a Questionnaire Survey. Int J Nur Stud, 2005; 42(8): 881-888.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65.

Ryan J, Poster EC. When a patient hits you. *Can Nurse*. 1991; 87(8): 23-25.

Taft LB.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NS Adv Nurs Sci*. 1985; 8(1): 77-84.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언어폭력이란 개인에게 모욕, 불쾌감, 자존감의 상실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말하며(Cameron, 1998), Manderino와 Barkey(1997)는 언어폭력을 타인을 비하 혹은 격하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품위를 떨어뜨리고 타인의 위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의 결여를 보이는 모든 언어적 행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하여 특정 개인이나 병원의 특성은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순수한 학문의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에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familylove25@hanmail.net

2011년 10월

연구자 이경희 올림

※ 다음의 해당란에 v표 하거나 기록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

2. 귀하는 현재 몇 세입니까? 만()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떠합니까?

- ① 전문대학 졸업 () ② 4년제 대학 졸업 () ③ 대학원 재학 이상 ()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사별 () ④ 기타 ()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없다 ()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6. 귀하의 간호사로서 총 임상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년

7. 귀하의 수술실 경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_____년

8. 귀하의 현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일반 간호사 () ② 책임 간호사 () ③ 수간호사 ()

9. 근무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Day 일근 () ② 2교대 () ③ 3교대 ()

10. 귀하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시간/일

11.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현재 피운다 () ② 과거에 피웠었다 () ③ 피운 적 없다 ()

12.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 ② 한달에 1번 미만 ()
③ 한달에 1-2회 () ④ 한달에 3-4회 () ⑤ 주 2회 이상 ()

13. 술을 마실 때 한 번에 마시는 평균 음주량은 얼마입니까?

-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 ② 1-2잔 () ③ 3-4잔 ()
④ 5-6잔 () ⑤ 7잔 이상 ()

14. 귀하는 평소에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운동을 합니까?

- ① 안한다 () ② 1일 () ③ 2일 () ④ 3일 ()
⑤ 4일 () ⑥ 5일 () ⑦ 6일 이상 ()

15. 귀하는 최근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유 () ② 무 ()

16. 최근 한 달 이내에 언어폭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

17. 있다면 횟수는 몇 번 정도입니까?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

18. 병원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 또는 대처에 대해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
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내주는 곳에 V표로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자신이 적어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8.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귀하가 경험하신 간호사 관련 언어폭력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신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항 목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간호사가 나를 무시하며 하찮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2. 간호사가 나에게 강압적인 명령조로 말을 한 적이 있다.				
3. 간호사가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4. 간호사가 나에게 반말을 한 적이 있다.				
5. 간호사가 나에게 화내며 욕을 한 적이 있다.				
6. 간호사가 나에게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7. 간호사가 나의 성격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귀하가 경험하신 의사 관련 언어폭력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신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의사가 나에게 강압적인 명령조로 말을 한 적이 있다.				
2. 의사가 나에게 화나며 욕을 한 적이 있다.				
3. 의사가 나에게 반말을 한 적이 있다.				
4. 의사가 나의 직종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5. 의사가 나를 헐박하면서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6. 의사가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7. 의사가 나의 외모나 신체상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한 적이 있다.				
8. 의사가 나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9. 의사가 나에게 다른 간호사(상사, 동료, 후배)에 관해 듣기 거북한 험담을 한 적이 있다.				
10. 의사가 나 보는 앞에서 나의 상사, 후배(동료)에게 반말이나 막말, 폭언을 한 적이 있다.				

※ 아래는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포함한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최근 몇 주 동안 느낀 상태를 그 이전과 비교하여 설명 한 것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응답 항목 하나를 골라서 그 항목에 표시(V)해주시시오. 응답내용은 현재를 포함하여 최근 2~3주 동안 당신이 주로 느낀 바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전 과거에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최근 2~3주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태를 그 이전과 비교해볼 때, 당신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2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적이 많았습니까?				
3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 있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4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었습니까?				
5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자주 있었습니까?				
6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7	일상적인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까?				
8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9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습니까?				
10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꼈습니까?				
11	그 전과 같은 정도로 외출을 하였습니까?				
12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3	신경이 쓰여서 힘들게 느껴진 일이 많았습니까?				
14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많이 설치곤 합니까?				
15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까?				
16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17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느꼈습니까?				
18	부지런히 생활하며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19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까?				
20	전반적으로 자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 다음은 귀하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수행하는 일(직무)은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2. 나의 일(직무)은 매우 시간이 여유 없이 뻘뻘하게 수행된다.				
3.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4. 내가 일(직무)을 수행할 때는 충분한 시간(기간)이 주어진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강요를 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6. 일을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7. 어떻게 일(직무)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권한)이 나에게 거의 없다.				
8. 나는 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 발언권을 많이 갖고 있다.				
9. 나의 일(직무)을 수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10.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반복적인 일이다.				
11. 나의 업무는 창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12. 나의 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13. 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한다.				
14. 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 빠진 항목은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주심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

감사의 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여정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시작한 공부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고 중간에 쉬어야 할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어느덧 마무리단계에 서있습니다. 논문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처음 오르막길은 힘든 지 모르고 올랐지만 점점 경사가 심한 곳을 넘으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나에게 이 산을 넘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였습니다.

특히 느리게 걷는 걸음에 재촉하지 않고 지켜봐주시고 이끌어주신 류소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제 논문을 심사해주시고 격려의 말씀 주신 박종 교수님, 한미아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며 2년 동안 저희들을 가르쳐주신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바쁘게 생활하는데도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조철현, 임진모 마취과장님, 박미선 국장님, 임현숙 부장님, 김해덕 부장님, 최수미 선생님, 불평·불만 없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수술실 강은경, 박유진, 박송이, 이소영, 강미애, 선생님 그리고 그 외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 무엇보다 설문조사 하면서 귀찮으실 텐데 많은 도움 주셨던 여러 병원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들께 정말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아버님과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시는 어머니, 목말라있던 배움의 길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는 큰오빠, 작은 오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안쓰러워하시는 호숙 이모, 호애 이모, 막내 삼촌 그리고 미처 이름을 다 적지 못한 우리 사촌 동생들과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12년 1월

이경희 드림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보건학과	학 번	20108613	과 정	석 사
성 명	한글: 이경희 한문 : 李 炘 禧 영문 : Lee Kyung Hee				
주 소	광주 광역시 북구 운암동 삼호 아파트 1동 1004호				
연락처	E-MAIL : familylove25@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영어 : Association of Verbal Abuse with Mental Health Among some Operating Nurs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2012년 1 월

저작자: 이 경 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